

‘포천文化 발전의 견인차 역할’ 다짐

포천문화원 2006 제4차 이사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9월 14일 감사 및 이사를 포함한 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4차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6월7일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제6대 신임 이사들에게 선임패가 수여 되었으며 신규회원 입회 및 탈퇴 승인, 자문위원 추대 등 심의안건과 제20회 반월문화제 시상식개최를 비롯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9월20일에 개최되는 이번 반월문화제 시상식에는 반월문화제 입상자 및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좋은 책 읽기경시대회 입상자 등 총 193명이 수상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6대 포천문화원 임원진은 회원들의 선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우리문화원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며 포천문화 발전을 위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포천문화원은 9월14일 감사 및 이사를 포함한 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제6대 신임 이사들에게 선임패가 수여되고 있다.)

은 공헌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며 포천문화 발전을 위한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7일, 포천사랑백일장 대회

포천문인협회(회장 이재욱)는 오는 9월27일 오후2시 포천반월아트홀 광장에서 제5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역 향토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개최하며 문학에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는 관내 초,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과 관내 소재 대학생 및 포천시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포천 사랑에 관련된 주제로 대회당일 발표되는 시제에 따라 운문과 산문을 창작하면 되며 입상 등급에 따라 포천시장상, 포천시의회 의장상, 포천교육장상, 포천예총 회장상, 포천문인협회 회장상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장원이나 다수의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에게는 시장 또는 교육장 표창도 계획되어 있다.

각 학교에서는 참가학생의 명단을 9월23일까지 팩스(031-532-8240)로 송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예총(포천문인협회) 531-8181, 포천문인협회 회장 이재욱(018-225-3191), 포천문인협회 이원옥 사무국장(017-364-9999)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18일 오후 2시 포천여성회관 3층 정성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42

어찌 저승에 간 사람에게 죄를 씌우겠소



리효중 포천한시사 대표

윤석보가 풍기군수가 되었을 때 사내중 하나와 계집종 하나만 데리고 부임지로 향했다. 그때 부인과 자식은 분가에 남겨두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하여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살아갈 수 없었다.

이에 부인 박씨는 생계를 위해 집안에서 전해오던 비단옷을 팔아 조그만 땅을 사두었다. 이 소식을 접한 윤석보는 골장 부인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지금 군수가 되어 나라로부터 녹을 먹으면서 어찌 토지를 사들 수 있었는가? 백성들과 서로 물건을 매매하여 나의 죄를 보태지 말라. 방장 돌려주라!”

박씨는 마지못해 그 땅을 되팔았다. 그가 성주목사로 부임할 때는 부인이 임신 8개월 쯤이었다. 그런 데도 그는 부임지로 떠나면서 아내에게 가마 대신 말을 타게 했다. 또 부인의 동생이 당시 삼주목사로 있었는데, 관아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소금을 보내며 보태 쓰라고 했다. 그러자 윤석보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며 소금을 모두 돌려 보냈다.

그가 사간원에 있을 때 동료들과 함께 연산군에게 쓴 말을 많이 올렸다. 마침내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그는 옛날에 아낀 말 때문에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사간원 동료들 중에는 이미 죄를 받아 죽음을 당한 사람이 여러 있었다. 그러자 몇몇 동료들이 윤석보에게 말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죄를 미루면 우리는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윤석보가 대답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찌 저승에 간 사람에게 죄를 씌우겠는가? 그렇게 해서 실형 우리가 죄를 면한다 하더라도 무슨 낯으로 지하에 가서 죽은 사람을 대하겠는가?”

윤석보(尹碩輔) ? ~ 1505년(연산군11)

본관은 칠원(漆原)이며 자는 자임(子任)이다. 1462년(세조8) 진사가 되고 1472년(성종3)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그후 여러 관직을 거쳐 1480년에 사간원 정언이 되어 곧은 말을 많이 아뢰었다. 풍기군수, 성주목사 등 여러 곳의 수령을 거쳐 1495년(연산군1)에 사간이 되었고, 1504년에 대사간이 되었다. 그해 갑자사화가 일어나는 등 실정을 거들하는 연산군에게 충언을 하다가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이듬해 죽었다.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 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

창명결백한 공직생활로 1506년(중종1) 영근리(凝根里)에, 선조 때 창백리로 뺏겼다. 갑자사화(甲子士禍) --- 1504년(연산군10)에 일어난 사건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가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하여 폐출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었다. 연산군이 즉위 후 이시호(李士浩)가 윤씨를 살려달라 하여 사약을 풀어 연산군에게 알려바쳐 이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건.

자유기고

포천의 문화방



이원용 시인

다고 한다.

하지만 근세역사는 포천을 접경지역으로 변태시키므로 문화 예술은 물론 지역의 발달조차 숨을 죽여야 했다. 하기가 그 당시는 안보라는 특수개념이 국민의 가슴에 박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는 잣대로 활용되지 않았던가.

지난달에는 제 6대 포천 문화원장 이만구님의 취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큰 기대를 갖게하는 분위기에서 포천시는 물론 경기도 문화원 협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해 분위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풍요로운 장편이 연출되었다.

신임 이만구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동참하는 문화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참신하고 활력 있는 문화원 ▶문화원 재정문제 해결 ▶사업의 벤치마킹 등 실로 기대감 넘치는 공약을 선포했다.

문화의 불모지 포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시민들은 갈망하니 다행은 감이 있다 하지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특히 박윤국 포천시장님도 축사에서 협소한 문화원사와 박물관부지를 몰래중이라는 소식이고 두분 모두 금년부터 임기를 시작하시니 그 뜻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는바 크다.

지금까지의 문화원은 군립하는 문화원이었다. 그런 결과로 참여라는 미명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지 못했고 고작 포천 매너리 한가지로 명맥을 이어온 포천의 문화예술은 퇴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한다. 지역문화의 기반이 부족하니 외부예술을 빌려와야 하는 아트홀은 교통편상 시민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불거리 제공으로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분야별로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하며 공격적으로 상호 관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은 재능으로 연결될 하지만 문화의 발달은 그것을 개인의 재능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재능은 사회에 노출되므로 시 공유물이다 노벨상이나 울림팩이 그 대표적인 선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포천문화원은 만족과 신뢰의 포천 시민자선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의 개념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문화의 전달체로서 역할하며 능력 있는 인재를 필수적으로 발굴 포용하는 용단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고대 예술은 개인적 또는 예능위주였다면 현대예술은 공익의 투자 없이는 발전할 수 없으며 문화의 웃을 입고 더불어 사는 시대적 변화가 동질성을 요구한다.

경제적 자립도가 원만치 못한 포천시의 난제를 이해하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며 금강산 가는 길목의 포천이 새롭게 단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제의 책

공자의 천하, 중국을 뒤흔든 자유인 이탁오(李卓吾)



김창중 수필가

지식산업사(도서출판) 「역사 속의 인간탐구24」로 포천출신(동양사 전공) 경희대 명예교수 신용철 박사(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석사, 철학박사)가 지은 「공자의 천하, 중국을 뒤흔든 자유인 이탁오」가 발간되어 학계의 놀라게 하고 있다.

「동양근대 사상의 선구자로 꼽히는 이탁오에 대한 30여년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 문체와 150여편의 그래픽 자료로 엮어 평전을 펴낸 경희대 신용철 명예교수라고 동아일보 이훈구 기자는 소개하고 있다.

“이탁오는 자신의 사상이 농축된 책의 이름을 읽고 나서 불태우려라 분서(焚書)라고 지었으며, 또 자신의 반대파를 역사 평론자는 읽고 나서 물어버리려라 장서(藏書)라고 지었지요. 실제 그가 죽고 난 뒤 명의 신종황제는 ‘이탁오의 책을 모두 불태우라’고 세 차례나 칙령을 내렸습다. 그러나, 그의 책은 ‘태우려 해도 태워지지 않고(焚而不焚) 감추려해도 감춰지지 않는 생명력을 발휘했고 그 후 예견한 것처럼 몇백 년 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저서를 말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 남녀평등 주장, 유불선(儒佛仙) 모두 수용한 자유인 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특별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탁오는 동양의 마르틴 루터였습다’라고 주장했다는 점과 ‘16세기 한,중,일의 선각자적 동시대 인물로 이탁오(1527~1602)와 이순신(1545~1598)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를 공동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일본 만화의 내용까지 담았다.’는 점이다.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신용철 박사 저(동양사 전공)

이탁오의 사상이 농축된 책의 이름을 읽고 나서 불태우려라 분서(焚書)라고 지었으며, 또 자신의 반대파를 역사 평론자는 읽고 나서 물어버리려라 장서(藏書)라고 지었지요.

실제 그가 죽고 난 뒤 명의 신종황제는 ‘이탁오의 책을 모두 불태우라’고 세 차례나 칙령을 내렸습다. 그러나, 그의 책은 ‘태우려 해도 태워지지 않고(焚而不焚) 감추려해도 감춰지지 않는 생명력을 발휘했고 그 후 예견한 것처럼 몇백 년 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저서를 말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 남녀평등 주장, 유불선(儒佛仙) 모두 수용한 자유인 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특별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세계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탁오는 동양의 마르틴 루터였습다’라고 주장했다는 점과 ‘16세기 한,중,일의 선각자적 동시대 인물로 이탁오(1527~1602)와 이순신(1545~1598)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를 공동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일본 만화의 내용까지 담았다.’는 점이다.

포천출신 역사학자 신용철 박사의 명저서를 한 번쯤 정독하여 개혁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도리를 다하는 포천인이 다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포천의 역사와 문화재 ②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공예와 포천

공예(工藝)는 신라 4대 현안왕의 아들이라는 설과 현안왕의 사위인 48대 경문왕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왕족의 후예라 알려져 있다. 삼국시대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5월 5일 외가에서 생하였는데 집위에 흰빛의 무지개가 생겨 하늘끝까지 뻗어 일관(日管)이 왕이 아들이라는 전설은 중오일(重午日)에 생하고 광염(光焰)이 이상하여 이름지 못하다 이르니 왕이 죽이라고 명했는데 중사(中使)가 그 집에 가서 강보(襁褓)의 아이를 뺏어 집어 던지니 그 아래에 있던 유모가 받다가 눈을 찔러 외눈이 되었다 전한다. 그 후 유모에 의해 양육되어 10세에 영월(靈岳)에 있는 세탈사(世達寺)에 들어가 입적하여 승려가 되어 미륵불(彌勒佛)이라 자처하게 되었다.

그후 기원에 의탁하였으나 기원이 박대하므로 경북현년 원주의 양갈에 가니 대우가 좋았다. 895년 양갈의 부하로 명주(지금의 강릉)까지 쳐들어와 공을 세우니 부하가 3,500명에 이르렀다. 이를 14개 부대로 나누고 군기를 엄정히 하고 공(功)을 세우니 여러 부장들의 권유로 장수로 추대되었다. 그후 영월의 김순식을 손잡고 패서도의 평산 박씨세력을 안았으며 896년 송악의 왕건부자를 귀북케 하고 895년 공예가 금성. 김화. 철원등을 점령하고 철원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고 개원하니, 892년에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함께 후삼국시대를 열게 되었으니, 이때 포천은 한산주의 견성군으로 사천현(沙川縣)과 동음현(洞陰縣)의 2개 영현(領縣)을 거느리며 공예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후고

▶지방관제와 문화재

고려시대에는 5도 양계(兩界)제로 약 500개의 주현(州縣)이 있었으며 포천은 양광도에 속하며 주와 동음현의 지역으로 어떤 때는 주현 혹은 영현으로 단련사가 나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양주의 속현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종때에는 경기도를 중전의 13개 군현에서 50여 군현(郡縣)으로 확장하였는데 이 때에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포천지역의 문화유적 가운데 고려시대의 문화재는 아주 귀한 실정이다. 관인면의 보가산선지, 운악산 화성, 명성산성, 태봉선지, 공예가 세웠다는 구름리 미륵불, 명종때 세워진 포천향교, 이성계가 이차점의 모함으로 4년간 피해선 전장을 갖고 강무를 했다는 재피골(宰皮谷)과 해룡산, 후궁 강제부인이 생활했다는 철현의 공발, 고려조의 공신 성여관, 성석린선생의 부자묘 등이 고려시대의 문화재이다.

포천지역의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공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호족들과의 전장의 지역으로, 삼국정립시대에는 견훤과의 각축을 이루는 전장의 지역으로, 고려의 건국과정에서는 공예와 왕건이 각축하면서 왕건에게 패퇴하는 역사의 지역으로 고려왕업의 기초를 닦는 전쟁지역이 되었다.



이중훈 포천시향교 경도문화관광예술사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장산, 불무산, 지장산, 곡막봉, 보가산등의 이름은 미륵산상을 퍼뜨렸던 공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문종때에는 경기도를 중전의 13개 군현에서 50여 군현(郡縣)으로 확장하였는데 이 때에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포천지역의 문화유적 가운데 고려시대의 문화재는 아주 귀한 실정이다. 관인면의 보가산선지, 운악산 화성, 명성산성, 태봉선지, 공예가 세웠다는 구름리 미륵불, 명종때 세워진 포천향교, 이성계가 이차점의 모함으로 4년간 피해선 전장을 갖고 강무를 했다는 재피골(宰皮谷)과 해룡산, 후궁 강제부인이 생활했다는 철현의 공발, 고려조의 공신 성여관, 성석린선생의 부자묘 등이 고려시대의 문화재이다.

포천지역의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공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호족들과의 전장의 지역으로, 삼국정립시대에는 견훤과의 각축을 이루는 전장의 지역으로, 고려의 건국과정에서는 공예와 왕건이 각축하면서 왕건에게 패퇴하는 역사의 지역으로 고려왕업의 기초를 닦는 전쟁지역이 되었다.

포천지역의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공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방호족들과의 전장의 지역으로, 삼국정립시대에는 견훤과의 각축을 이루는 전장의 지역으로, 고려의 건국과정에서는 공예와 왕건이 각축하면서 왕건에게 패퇴하는 역사의 지역으로 고려왕업의 기초를 닦는 전쟁지역이 되었다.

*참조: 포천군지.



수필가 김창중의 <포천 이야기> (176)

8·15와 포천의 「과거사 청산」

요즘 중앙정부 각 부처에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사법이 발효되면 포천에는 누가 해당이 될까?

제2차 세계대전(대동아 전쟁-일본이 지칭한 전쟁 이름) 당시 내 고향 포천에는 소위 대일본부 인회를 비롯하여 국민학교, 면사무소를 통해 폭탄 제조용 쇠부처와 돛그릇을 겹우어 갔다.

소나무, 잣나무 껍질까지를 모으고 머뭇머뭇을 모아 군납하였는데 껍질까지를 곁에서 송탄유(松炭油)를 만들어 항공유 대신 비행기 연료로 썼다.

대문 앞에는 전정터에서의 무운을 비는 무운장구 깃발이 팔려있었다.

일본부인회 회원들은 천명의 싹땀을 떠 받아 무운을 비는 피를 어깨에다 둘러 메고 가게 하였다.

매일 아침 강제로 입대하는 징병 접송행사가 경찰서 앞에서 있었는데 일장기 물결이 넘쳤다. 종으로 만든 일장기가 찢어지거나 날아 풀러가니 일본이 망할 때도 됐지 않은가? 한국인으로 면장이 되어 일본제국주의의 앞잡이 개노릇을 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 경찰 간부인 순사부장이 되어 관

사에서 세도를 누리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일본 헌병대 헌병 보조원으로 일제 헌병의 앞잡이를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

8·15해방이 되자 일제 순사부장 출신이 면장이 되기도 하고 헌병 보조원 출신이 농민회(현 농협)의 전신)장이 되었으며 일제 면장 출신이 마을 유지로 국회의원에 임후보하였는가 하면 일본 부인회장이 대한부인회장이 되었다.

8·15해방이 되자 인구 5만명의 내고장 포천에도 정당이 난립하였다. 한독당, 민족청년당, 대한 독립촉성회, 한국민주당 등이다. 지하당으로 남조선 노동당이 약약하기도 하였는데 교사들이 많았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독립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보다도 일제에 협력하였던 친일세력들이 일본인 재산(적산)을 자기 재산인양 양도받아 평평거리고 살았다는 사실은 슬픈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38선이 확정되자 이동면, 영중면, 영북면이 이북이 되었으니 내 고향 포천은 영평천을 경계로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양문리나 신음리에는 이중간첩이 횡행하고 38선상에서는 매일 간첩적 전투가 계속되어 늘 시끄러웠다.

38선을 소련군이 경계하고 가끔 읍내 대장터까지 소련군이 내려와 물건을 사가기도 하더니 1948년부터는 완전히 통행금지되었다.

8·15해방전 일제치하에서 권세를 누리던 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은 채 1950년 6·25의 비극의 일요일을 맞았다는 게 웬은 대답일 것이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최종규 (포천명유회 회장)

先農壇懷古

(선농단회고)

神農后稷典農(신농후적전농명)

신농과 후적은 농사법을 밝혔으며

霖雨施霑千里野(림우시점천리아)

단비가 내려서 온 들판을 적시고

新街夜月兒童戲(신가야월아동희)

달밤에 새거리에는 아이들이 놀고

檀域願豐初獻酌(탄역원풍초헌작)

이 나라의 풍년을 위하여 초헌을 올리고

開拓田園始作耕(개척전원시작경)

전원을 개척하여 밭갈이를 시작하였도다.

薰風解慍萬方聲(훈풍해은만방성)

훈풍에 분을 푸니 만방에서 명성이 나네

故國春陽父老情(고국춘양부로정)

고국의 봄빛은 늙은 아버지의 정과 같도다

壽安之樂衆人榮(수안지락중인영)

수안지역을 울리니 중인이 영화롭도다.